

■ 한국청소년패널조사 데이터분석보고서 1

청소년의 선호직업 및 직업가치 특성에 관한 연구

책임연구원 : 이경상(한국청소년개발원 · 부연구위원)

공동연구원 : 강영배(극동대학교 · 교수)

연구보조원 : 조주연(한국청소년개발원 · 위촉연구원)

한국청소년개발원

연구 요약

1. 연구목적

- 이 연구에서는 한국청소년패널조사(KYPS) 3차년도 자료를 바탕으로 중학교를 마치고 고등학교에 진학한 고등학교 1학년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1) 이들이 현재 얼마나 자신의 장래 직업을 잠정적으로 선택해 놓고 있는지, 2) 이들이 잠정적으로 선택하고 있는 선호 직업의 특성은 어떠한지, 3) 잠정적으로 선택한 선호 직업에 부여하고 있는 직업적 가치의 특성은 어떠한 지 등을 살펴보고자 함.

2. 연구내용

- 선호직업 선정여부의 분포 특성
- 선호직업의 실태 및 관련요인
- 직업가치의 실태 및 관련요인

3. 연구결과

- 선호직업 선정여부의 분포 특성 : 현재 고등학교 1학년 청소년들의 77.9%가 자신의 장래 선호직업을 잠정적으로 정해 놓고 있고 22.1%는 아직 결정하지 못하고 있음. 고등학교 1학년 청소년기가 자신의 잠정적인 진로를 설정, 준비하는 단계임을 감안하면 22.1%의 청소년들에 대한 직업·진로 탐색교육의 필요성이 요구됨.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이, 실업계 학생보다는 인문계 학생이 약간 더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음.

- 선호직업의 실태 : 고등학교 1학년 청소년들의 70% 가량은 의사, 교사 등의 전문직을 선호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서비스직을 선호하고 있음. 여학생들이 여성적 이미지가 강한 전문직, 서비스 및 판매직에 대한 선호도가 높고, 남학생들은 의회임원,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기술공 및 준전문가, 사무종사자, 기능직, 군인 등에 대한 선호도가 높음. 인문계 청소년들이 실업계 청소년들보다 전문직, 고위직에 대한 선호도가 높고, 실업계 청소년들은 기술공 및 준전문가, 서비스 및 판매종사자, 기능직 등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직업선호 관련요인 : 자연계열 청소년보다는 인문계열 청소년들이 고위·전문직군을 선호하는 경향이 더 강하며($\text{Exp(B)}=3.791^{***}$), 아버지의 학력이 높은 집안의 청소년들일수록 고위·전문직군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text{Exp(B)}=1.056^*$).
- 직업가치의 실태 : 고등학교 1학년 청소년들은 자신의 선호직업에 대한 직업가치를 내적 보상 > 사회적 보상 > 환경적 보상 > 자율·창조적 보상 > 외적 보상의 순으로 부여하고 있는데, 내적, 사회적 보상을 중시하며 동시에 자율·창조적, 외적 보상도 무시하지 않는 직업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직업가치 관련요인 : 전반적으로 고등학교 1학년 청소년들의 직업가치는 성별, 계열별, 학업성취, 성역할 태도 변수와 같은 개인변수의 영향을 많이 받으며 가정배경 변인의 영향은 덜 받는 것으로 나타남.

4. 정책제언

- 청소년 직업·진로교육의 위상강화

현재 고등학교 1학년 청소년들의 22.1%는 아직 자신의 장래 선호직업을 선정하지 못한 상태임. ‘학교 진로교육이 상위개념에 서고 학교 교

과교육이 그 하위부문으로 존재'하는 형태의 보다 적극적인 학교 진로 교육체제(이지연, 2005)가 마련되어야 할 것임.

1) 진로, 직업관련 교과수업의 확대 강화 : 학교 교과과정의 상당부분을 진로, 직업관련 교과목을 배우는 시간으로 할애함.

2) 일 체험의 필수화 : 청소년들의 실질적인 체험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일 체험을 필수화함.

3) 진로탐색프로그램의 강화 : 특별활동, 재량활동 시간을 자신의 진로 탐색을 위한 자아탐색 및 직업탐색 시간으로 실질적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게 함. 학생들이 방과후, 주말, 방학시간을 사교육이 아니라 청소년단체의 직업체험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게 함.

●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진로교육 강화

또한 고등학교 1학년 청소년들의 70% 가량이 의사, 교사 등 전문직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따라서 진로교육의 위상을 강화하되,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진로교육 강화에 맞춰야 할 것임.

1) 에딘버러 포상프로그램 방식의 진로체험 프로그램 강화 : 진로체험 프로그램의 구성 및 운영방식을, 에딘버러 포상프로그램 방식을 원용하여, 타인과의 경쟁은 배제한 상태에서 청소년이 스스로 자신에게 알맞은 활동목표와 활동기간을 설정하여 프로그램에 참여한 후 지도자가 성취정도를 평가하여 '(가칭)청소년진로체험인증서'를 수여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됨.

2) 청소년 아르바이트의 진로 · 직업체험 프로그램화 : 청소년들의 30-40%가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 '아르바이트'를 '불완전 아르바이트 여건으로부터의 보호', '건전 아르바이트 업종소개 및 확장' 등의 사회제도적 보완과정을 거쳐 진로체험 프로그램으로 양성화하는 것이 바람직함.

목 차

I. 서 론

II. 이론적 논의

1. 직업선택의 개념 및 관련요인 7
 - 1) 직업선택의 개념 7
 - 2) 직업선택의 관련요인 8
2. 직업가치의 개념 및 관련요인 10
 - 1) 직업가치의 개념 10
 - 2) 직업가치의 관련요인 12
3. 연구문제 15
 - 1) 직업선택 15
 - 2) 직업가치 15

III. 연구방법

1. 분석자료 19
2. 주요 변수의 측정 21

IV. 분석결과

1. 선호직업 선정 유무 27
2. 선호직업의 특성 29
 - 1) 선호직업의 실태 29
 - 2) 직업선택의 관련요인 32
3. 직업가치의 특성 33
 - 1) 직업가치의 실태 33
 - 2) 직업가치의 관련요인 37

V. 결 론	
1. 연구의 요약	43
2. 정책적 제언	45
참고문헌	49

표 목차

<표 II-1> 부모의 직업과 청소년의 선호직업과의 관계	9
<표 II-2> 직업에 대한 가치의 하위영역	11
<표 III-1> 중2 패널 2차년도 조사의 표본유지율	20
<표 III-2> 중2 패널 3차년도 조사의 표본유지율	21
<표 IV-1> 선호직업 선정유무-전체	27
<표 IV-2> 선호직업 선정유무-성별	28
<표 IV-3> 선호직업 선정유무-계열별	28
<표 IV-4> 선호직업 특성의 분포-전체	29
<표 IV-5> 선호직업 특성의 분포-성별	30
<표 IV-6> 선호직업 특성의 분포-계열별	31
<표 IV-7> 고위·전문직 선호에 대한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33
<표 IV-8> 직업가치 특성의 분포-전체	35
<표 IV-9> 직업가치 특성의 분포-성별	36
<표 IV-10> 직업가치 특성의 분포-계열별	36
<표 IV-11> 직업가치에 대한 OLS 회귀분석	38

I. 서론

I. 서론

진로발달단계(career development stage)의 관점에서 보면 유치원·초등학교 시기는 진로를 인식(career awareness)하는 단계, 중·고등학교 시기는 진로를 탐색·선택·준비(career exploration and preparation)하는 단계, 대학교 시기는 진로전문화(career specialization)단계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이광호 외, 2000).

중·고등학교 시기에 진로를 탐색하고 선택·준비한다는 것은 청소년들이 여러 가지 직간접적인 체험을 통해 다양한 직업세계를 살펴보고, 살펴본 직업세계에 대한 자신의 직업적성과 흥미 등의 적합성 여부를 검토하고, 자신의 의미있는 의사결정능력을 함양한 후, 자신의 진로선택의 폭을 점차 좁히거나 잠정적인 진로를 선택하여 구체적인 진로준비에 이르게 되는 과정을 말한다(이경상 외, 2004). 이 과정에는 자신의 직업적성, 흥미, 능력 등에 대해 탐구해 가는 자아탐색과정, 직업의 중요성, 직업의 종류, 자신의 직업전망에 대해 탐구해 가는 직업세계탐색과정, 그리고 그러한 직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체험하면서 배워가는 직업현장탐색과정 등이 포함된다.

따라서 청소년들은 자기 생애의 성공적인 진로발달 및 달성을 위해 중·고등학교 시기에 직업·진로교육과 관련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직업세계를 살펴보고, 자신의 직업적성과 흥미, 능력 등에 대해 살펴보고, 잠정적인 진로를 설정하여 자신의 진로를 달성해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정책당국, 학교, 학부모 등은 청소년들이 성공적으로 자신의 진로탐색·선택·준비를 해 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와 진로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청소년들이 큰 시행착오 없이 성공적으로 사회진출을 도모할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청소년 시기의 진로지도는 각 개인이 어떤 직업을 선호하고 있는지, 그리고 각 개인이 선호하는 직업을 통해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고려하여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무엇보다 직업가치에 대한 탐색과 명료화 작업이 합리적인 진로결정에 선행하기 때문이며, 또한 개인이 직

업으로부터 추구하는 가치와 개인이 선택한 직업적 특성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직업 분야에서 적응하지 못하거나 낮은 직업만족도를 나타냄으로써 개인적, 사회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김정숙, 2006)

이 연구에서는 한국청소년패널조사(KYPS) 3차년도 자료에 나타난 중학교를 마치고 고등학교에 진학한 고등학교 1학년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이들이 현재 얼마나 자신의 장래 직업을 잠정적으로 선택하고 있는지, 이들이 잠정적으로 선택하고 있는 선호 직업의 특성은 어떠한지, 그리고 잠정적으로 선택한 선호 직업에 부여하고 있는 직업적 가치는 어떠한 특성을 띠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고등학교 1학년 시기는 중학교 시기를 거쳐 고등학교 계열선택이 이뤄진 시기이며 2년 정도의 기간을 거친 후에 사회진출과 대학진학의 두 가지 진로선택이 이뤄진다는 점에서 이들의 선호직업과 직업가치의 특성은 중요한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될 것이다.

첫째, 다음의 II장은 이론적 논의 부분으로 직업선호의 개념 및 관련요인, 직업가치의 개념 및 관련요인에 대해서 논의한 후에 이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연구문제를 제시할 것이다.

둘째, III장은 연구방법으로 이 연구에서 분석의 대상으로 삼은 한국청소년패널조사(KYPS) 3차년도 자료의 특성과 주요 변수의 측정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다.

셋째, IV장은 데이터의 분석결과 제시부분으로 고등학교 1학년 청소년들의 선호직업 선정 유무의 분포 특성, 선호직업의 특성, 직업가치의 특성의 순으로 분석결과를 제시하게 될 것이다.

넷째, V장은 결론부분으로 연구를 요약하고 결론을 제시하게 될 것이다.

II. 이론적 논의

1. 직업선호의 개념 및 관련요인
2. 직업가치의 개념 및 관련요인
3. 연구문제

II. 이론적 논의

1. 직업선호의 개념 및 관련요인

1) 직업선호의 개념

먼저 직업선호의 개념에 대해 살펴보면, 성태제·시기자(2001)는 직업선호(vocational preferences)와 직업흥미(vocational interests)를 동일한 개념으로 보면서, 직업흥미를 특정 직업이나 직업군 또는 해당 직업에서의 전형적인 직무에 대한 선호 정도와 그 직업에서의 주된 활동을 취하려는 선호적, 선택적 경향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그 직종에서의 적응이나 성공 가능성을 위한 일종의 준비도(readiness)라고 정의하고 있다. 한편, 양한주(1998)는 직업선호를 개인이 어떠한 직업 또는 직업적 활동에 대하여 보다 더 긍정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고, 구체적인 직업 또는 직업적 활동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을 때, 어떠한 기준에 근거하여 특정한 직업 또는 직업적 활동을 우선적으로 선택하는가 하는 것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다.

한편, 尾島(2001)에 따르면, 청소년들의 선호직업은 자신의 진로선택에 있어 불명확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현실적인 진로선택이라고 하기보다는 개인의 희망을 나타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청소년들의 직업선호는 실현 여부와는 별개로 장래 자신이 희망하는 직업에 종사하고 싶다고 하는 심리적 상태라고 설명할 수 있겠다. 하지만, Super, Ginzberg와 같은 진로발달론자들은 이러한 청소년들의 직업선호는 성장발달단계에 따라 그들이 처해 있는 사회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되기 때문에 비현실적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최근까지 한국에서 이루어진 연구들(강희돈 1993, 임용수, 정우현 1988)에서는 청소년들의 선호직업을 직업적 열망, 사회적 지위 달성의 수단으로 보려는 경향이 강했다. 하지만 荒牧(2001)는 청소년들의 선호직업에 있어서도 사회적 지위의 높고 낮음과는 별도의 차원에서의 지향성의 차이가 영

향을 미치고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에 따르면, 자아실현지향성, 사회경제지위지향성 그리고 타자사고지향의 3가지 차원에서 청소년들의 선호직업의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2) 직업선호의 관련요인

Crites(1969, 1991)는 직업선택을 위한 구성요소로 선호(preference), 열망(aspiration), 의지(intention)를 들면서, 이러한 요소들은 상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그는 청소년들의 직업선택에 있어 현실적 요소와 실현가능성과 같은 요소들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강영배(2004b)의 연구에 의하면, 중학교 청소년은 자아실현과 사회경제적 지위 획득이 가능한 전문적 영역의 직업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사와 의사와 같은 직업에 대한 선호경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와 같은 결과는 삼성경제연구소(2003)와 문화관광부(2001), 강영배(2004a)의 조사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이다.

위의 조사결과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성별로는 여자청소년들이 남자청소년들에 비해 교사에 대한 선호경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경향은 직업이 주는 성적 이미지에 있어 교사라는 직업이 가지는 직업적 이미지가 여성에 가깝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남자청소년은 운동선수, 컴퓨터관련분야에 대한 선호경향이 강한 반면, 여자청소년은 디자인과 같은 분야의 직업을 선호하였는데, 이와 같은 결과는 위에서 언급한 직업과 성적 이미지와의 관련성과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이러한 직업에 대한 선호경향은 잠정적인 형태로 존재하는 것이라는 점 즉, 윤숙자(1993)도 주장하는 바와 같이 청소년들은 성장함에 따라 자신의 장래희망이 변화하며, 이러한 변화의 원인은 적성과 능력, 성적과 같은 변수를 고려하여 희망직업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위의 조사결과와 관련하여 Linda Miller and Jacqueline Budd(1999)는 청소년들의 직업선호를 성역할고정관념화(sex-role stereotyping)의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이들 연구자의 주장에 따르면 6세경부터 직업선호에 있어 성

역할고정관념이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영향은 성인기에 달해서도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또한 남녀 청소년 모두 직업선호에 있어 성역할 고정관념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여자청소년들이 남자청소년들에 비해 직업에 대해 자유로운(liberal) 견해를 취하고 있음을 발견했다. 이러한 경향은 최근까지도 청소년들의 직업선호에 있어 유효하다고 보고 있다.

다음으로 청소년들의 직업선호에 대한 부모의 영향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일반적으로 청소년들의 직업선호에 있어 부모들의 영향력이 클 것으로 여겨질 지도 모르지만, <표 II-1>의 결과에서 보여주듯이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의 규정력이 그다지 강하지 않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김진석(1992)의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의 선호직업은 부모의 학력, 직업, 가정의 소득수준 등에 따라 상이한 결과를 보인다고 보고하고 있으나, 荒牧(2001)와 有田(2002), 강영배(2004c)는 청소년들의 선호직업과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사이의 상관관계가 약화되고 있다고 설명한다.

<표 II-1> 부모의 직업과 청소년의 선호직업과의 관계

구분		청소년의 희망직업		
		화이트칼라직	비화이트칼라직	합계
아버지 직업	화이트칼라직	106(83.5)	21(16.5)	127(100.0)
	비화이트칼라직	288(85.5)	49(14.5)	337(100.0)
$\chi^2=.287 \quad df=1 \quad p=.663$				
어머니 직업	화이트칼라직	182(86.7)	28(13.3)	210(100.0)
	비화이트칼라직	185(84.5)	34(15.5)	219(100.0)
$\chi^2=.417 \quad df=1 \quad p=.583$				

출처 : 강영배(2004), 청소년의 직업기대 영향요인에 관한 고찰,

물론 위의 연구들이 나름대로의 논리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되지만, 청소년들의 선호직업과 부모의 사회경제적지위의 관계는 그리 단선적 관계에 있지 않다. 하지만, 한국사회에서 고등교육의 일반화, 대중화, 보편화와 아울러

직업세계의 다양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청소년들의 의식, 의사결정의 개인화 경향이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향후 청소년들의 선호직업에 있어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의 규정력은 약화될 것으로 여겨진다.

2. 직업가치의 개념 및 관련요인

1) 직업가치의 개념

먼저, Kluckhohn(1962)는 가치란 행동의 목표, 이용가능한 수단 양식의 선택에 영향을 주는 개인이나 집단이 특이하게 소유하고 있는 소망 대상에 대한 외현적 또는 내재적인 개념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정연(2000)은 일에 대한 가치관은 사람들이 일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들의 중요성을 판단하는 기준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한편, 남승규(1995)는 가치를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선호되는 안정된 상위신념으로서 어떤 행동에 대한 기준기능, 갈등해결과 의사결정을 위한 일반계획기능, 그리고 행동을 장기적으로 안내하는 동기기능으로 작용한다고 보고 있다. 즉, 개인의 직업선택에 있어 가치가 중요한 기준기능, 일반계획기능 그리고 동기기능을 한다고 할 수 있겠다. 한편, 양한주·정철영(1998)은 직업가치관을 개인이 어떠한 직업 또는 직업적 활동에 대하여 어떠한 생각과 태도를 갖고 있으며, 또 이들에 대해서 어떠한 가치를 부여하는가 하는 것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직업가치는 어떻게 측정되고 있을까? 현재까지 직업가치의 측정을 위해 다양한 측정도구들이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는데,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것이 Super(1973)의 「Work Value Inventory, WVI」이며, 총 15개의 항목들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Miller(1974)는 일에 대한 가치관을 외적 영역과 내적 영역으로 분류하여, 외적영역에는 협동성, 경제적 보수, 독립성, 명예심, 안전성, 감독과의 관계, 환경조건, 다양성, 생활방식 등의 요소로, 내적 영역에는 성취성, 이타주의, 창의성, 심미성, 지적자극, 경영관리 등과 같은 요소들을 포함시키고 있다.

<표 II-2> 직업에 대한 가치의 하위영역

하위영역		내용
외재적 가치	권력 추구	직업선택시에 신분, 명성과 명예를 중시하는 경향
	경제우선	부, 수입, 경제적 자립 등에 의하여 일이나 직업을 선택하는 경향
	개인주의	건강과 노후대책 등에 영향을 받아 일이나 직업을 선택하는 경향
	사회인식중시	사회신분의 척도로서 주위의 평가를 고려하는 경향
	안정추구	가정의 평화나 일신상의 안정을 추구하는 경향
내재적 가치	자기능력	자신의 흥미, 적성, 성격에 의해 일이나 직업을 선택하는 경향
	사회헌신	일이나 직업을 사회적 봉사라는 입장에서 보람을 찾는 경향
	인간관계 중심주의	인간관계를 중시하고 사회구성원의 임무를 우선 고려하는 경향
	이상주의	자신의 이상을 실현하는 도구로서 직업을 선택하는 경향
	자기표현	일과 삶을 통하여 자신을 표출하려는 경향

출처 : 김병숙 외(1998), 한국인의 직업의식 조사, 27.

양한주 · 정철영(1998)의 연구에서 청소년들의 직업가치관을 내발적 영역, 외발적 영역, 부수적 영역으로 분류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내발적 영역에는 봉사성, 독창성, 독립성, 욕구충족성 및 자아실현성, 리더십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외발적 영역에는 수익성, 존경성, 안정성 및 장래성 등이 포함되어 있다. 부수적 영역으로 대인관계와 다양성을 포함시키고 있다.

한편 최근에는 직업가치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지면서, 직업가치 요인을 외재적 가치와 내재적 가치로 이원화시키던 것을 좀 더 세분화시키려는 시도가 행지고 있는데, 김정숙(2006)은 한국청소년패널조사(KYPS) 2차년도 자료를 가지고 중학교 3학년 청소년들에 대해 분석한 직업가치 연구에서 직업가치를 외적보상, 내적보상, 환경적 보상, 자율·창조적 보상, 사회적 보상의 5가지 범주로 크게 나눠 분석하고 있다. 외적보상에는 돈을 많이 벌수 있음·권력이 많음·사회적 명예가 높음의 세 가지 하위 문항을 포함시키고 있고, 내적 보상에는 더 배우고 발전할 가능성·소질과 적성에 부합의 두

가지 문항을 포함시키고 있으며, 환경적 보상에는 시간적 여유가 많음 · 쾌적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음 · 안정적으로 오랫동안 일할 수 있음의 세 가지 문항을 포함시키고 있으며, 자율 · 창조적 보상에는 자유재량권이 많음 · 반복되지 않고 다양한 일을 할 수 있음 · 아이디어를 내고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음의 세 가지 문항을 포함시키고 있으며, 사회적 보상에는 사회에 봉사할 수 있음 · 혼자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일할 수 있음의 두 가지 문항을 포함시키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김정숙의 정의를 따라 고등학교 청소년의 직업가치를 외적 보상, 내적보상, 환경적 보상, 자율 · 창조적 보상, 사회적 보상의 5가지 범주로 크게 나눠 분석하고자 한다.

2) 직업가치의 관련요인

공보처(1996)는 한국 청소년들의 직업의식의 특징으로, 그들은 매우 현실적이고 전통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는 기성세대와는 달리 일반적으로 직업의 내재적인 또는 이상적인 가치들을 중요시하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또한, 김정숙 외(1999)의 연구에서 청소년들은 자신들의 직업선택에 있어 직업 그 자체가 주는 보람과 그것을 통한 사회적인 성취를 위해 직업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청소년은 직업가치에 있어 1차적으로는 직업의 내재적 가치를 중요시 하지만, 그렇다고 사회경제적 지위와 같은 외재적 가치를 부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즉, 직업 그 자체를 즐기면서 그를 통해 만족을 추구하지만, 아울러 그러한 직업활동을 통하여 경제적으로도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고자 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옥(1993)은 장래 자신의 직업결정에 있어 직업의 내재적 가치보다는 직업적 지위, 수입 등과 같은 외재적 가치를 더욱 중요시하며, 아울러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이러한 경향성은 더욱 강화된다고 주장한다.

한편 일반적으로 중학생 정도의 연령 계층은 직업에 대한 가치관에 있어서 현실적이라기보다는 다분히 이상적인(ideal) 경향을 나타내며, 따라서 직업을 통한 자아실현이라든지 혹은 사회에의 봉사 등에 높은 가치를 두는 것

으로 알려져 있으나, 양현주(1998)의 연구 결과, 청소년들은 직업을 통한 자아실현이나 사회공헌 못지않게 외부적인 간섭을 받지 않고 자신이 선택한 직업에 안심하고 종사할 수 있는 것이라든지 혹은 직업을 통하여 사람을 사귄 수 있는 것에도 높은 가치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백영균(1980)은 장래의 직업결정 여부와 직업가치와의 관계에 있어, 직업을 이미 결정한 학생들은 경제적 요인을, 직업을 결정하지 않은 학생들은 생활안정과 자아실현적인 요인 및 노동조건을 보다 중시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보고하고 있다.

한편, 김정숙(2006)은 중학생들의 직업가치에 있어 가정배경 배경보다는 성별, 학업성취, 학생의 교육포부 수준, 성역할 태도에서 유의미한 영향이 존재한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정적인 변수들만 고려하고 있고, 동적 변수, 즉 경험 변수를 고려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청소년을 직업가치 결정에 있어 소극적 태도를 취하는 존재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위의 주장과 관련하여 Schulenberg(1993)은 개인의 직업적 가치는 정적(static)이지 않으며, 성장과정에 있어 여러 가지 요인들의 영향을 통해 변화한다고 주장한다. Blustein(1989)은 청소년들은 성장함에 따라 직업에 대한 만족, 자아실현과 같은 내재적 가치의 비중은 증가하는 반면, 경제적 보상, 사회적 지위와 같은 직업의 외재적 가치의 비중은 감소한다고 주장한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러한 연구 결과도 직업가치가 가변적이며 유동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을 때, 중학생 시기 이후에 그들이 경험하게 될 환경의 변화와 경험의 질적, 양적 축적을 통하여 변화할 수 있다고 하겠다.

청소년들의 직업가치를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강영배(2004a)는 남자청소년들의 경우는 직업의 경제적 보수를 중요시하는 반면, 여자청소년은 직업을 통해 여러 사람들과 사귀거나 다양한 경험을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영배(2004b)의 중학교 청소년들에 대한 직업가치에 관한 분석 결과, 여자청소년들은 수익성, 존경성, 환경성, 안정성을 중시하는 반면, 남자청소년들은 사회봉사, 학습지향성, 업무의 자율성 및 창조성 그리고 리더십과 협동심

을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한주·정철영(1997)은 남자 청소년들은 직업가치 가운데 리더십과 수익성 등과 같은 가치를 중요시하는 반면, 여자 청소년들은 대인관계를 중요시하고 있다는 점을 밝혀냈다. 이현림(1997)은 남자대학생들의 경우는 이타성, 창조성 등을 중요시하는 반면, 여자 대학생들은 근무조건을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는 이현주(2004)의 연구결과와는 정반대의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위의 연구결과와는 달리, Krau(1987)의 연구에 따르면, 여자청소년들은 남자청소년들에 비해 직업의 외재적 가치를 중요시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Fiorentine(1988)의 연구에서는 직업가치에 있어 남녀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지금까지 성별에 따른 직업가치의 차이에 대해 살펴보았다. 위의 연구결과에서는 이러한 직업가치의 성별차이의 원인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하고 있지 못하다. 이에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회화(socialization)의 영향과 조아미(2000)도 지적하고 있듯이 자아효능감(self-efficacy)과 성역할정체감(sex-role identity) 등과 같은 요인의 영향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이러한 변수들이 남녀간 직업가치의 차이를 설명하는데 유효할 것으로 생각한다.

다음으로 부모의 영향에 대해 살펴보자. 김병숙 외(1998)의 연구에서 부모의 학력수준은 청소년들의 직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아버지의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청소년들은 직업의 사회경제적 가치를 중요시하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어머니의 학력수준은 청소년들의 직업가치에 그다지 영향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강영배(2004b)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청소년들은 직업이 가지는 자아실현적 가치를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장원섭(2000)은 아르바이트 경험 집단이 비경험집단에 비해 경제적 가치에 대한 인식 수준이 높다고 보고하고 있다.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 목적이 사회생활의 체험보다는 경제적 수입에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결과는 어느 정도 설득력을 지닌다고 하겠다. 하지만, 위의 연구에서는 아르

바이트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한 설명이 없으며,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배달과 서빙, 단순사무보조 등과 같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험의 효과성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3. 연구문제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이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1) 직업선호

첫째, 고등학교 1학년 청소년들의 선호직업의 분포특성은 어떠한가?

둘째, 고등학교 1학년 청소년들의 선호직업의 분포특성에 미치는 관련 요인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2) 직업가치

첫째, 고등학교 1학년 청소년들의 직업가치의 분포특성은 어떠한가?

둘째, 고등학교 1학년 청소년들의 직업가치의 특성에 미치는 관련 요인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III. 연구방법

1. 분석자료
2. 주요 변수의 측정

III. 연구방법

1. 분석자료

이 연구에서 분석에 사용한 자료는 한국청소년개발원에서 중다전망적 패널조사설계(multi point prospective panel survey design)하에 2003년 기준 표본으로 선정된 전국의 중학교 2학년 청소년들과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향후 6년간 동일표본 반복 추적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하고 있는 한국청소년패널조사(KYPS)의 1-3차년도 자료 중 3차년도 고등학교 1학년 청소년들에 대한 자료이다.

한국청소년패널조사 1차년도 자료는 2003년 4월 1일 기준 교육통계연보에 나타난 전국의 중학교 2학년 청소년들을 모집단으로 층화다단계 집락표집(stratified multi-stage cluster sampling)방법에 의해 표본으로 뽑은 3,697명의 중학교 2학년 청소년들과 그들의 부모들을 대상으로 2003년 10월 27일부터 12월 20일까지 조사를 실시한 자료이다. 조사결과, 부모의 동의를 얻어 청소년들과 부모 모두를 성공적으로 조사한 경우는 3,697명의 93.3%인 3,449명이었고 이 가운데 남학생은 1,725명이고 여학생은 1,724명이었다.

2차년도 자료는 1차년도 조사결과 최종 표본으로 구축된 3,449명의 청소년들 및 부모들을 대상으로 2004년 11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 추적조사를 실시한 자료이다. 조사결과, 청소년을 기준으로 1차년도 조사대상자 3,449명의 92.4%인 3,188명의 자료가 수집되었다.

3차년도 자료는 1차년도 조사결과 최종 표본으로 구축된 3,449명의 청소년들 및 부모들을 대상으로 2005년 10월 20일부터 12월 20일까지 추적조사를 실시한 자료이다. 조사결과, 청소년을 기준으로 1차년도 조사대상자 3,449명의 90.6%인 3,125명의 자료가 수집되었다.

보통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부모의 학력, 가구수입 등 가구의 사회경제적 지위 변수를 측정할 자료들의 경우, 청소년들이 부모의 정확한 학력, 정확한

가구수입 등을 알지 못해서 측정의 오류가 많았던 반면, 한국청소년패널조사는 부모의 학력, 가구수입 등을 청소년들에게 묻지 않고 부모들을 대상으로 직접 측정했다는 점에서 보다 정확한 자료라고 할 수 있다.

<표 III-1> 중2 패널 2차년도 조사의 표본유지율

	조사대상 패널수 ¹⁾	조사가능 패널수	조사성공 사례수	조사대상패널수 대비 조사성공 사례수(%)	조사가능패널수 대비 조사성공 사례수(%)
서울특별시	587	573	528	89.9%	92.1%
인천광역시	199	196	185	93.0%	94.4%
경기도	773	765	675	87.3%	88.2%
강원도	123	123	103	83.7%	83.7%
대전광역시	102	102	99	97.1%	97.1%
충청도	255	254	245	96.1%	96.5%
광주광역시	137	136	132	96.4%	97.1%
전라도	249	247	231	92.8%	93.5%
부산광역시	255	253	246	96.5%	97.2%
울산광역시	106	106	105	99.1%	99.1%
대구광역시	212	212	201	94.8%	94.8%
경상도	451	450	438	97.1%	97.3%
합계	3,449	3,417	3,188	92.4%	93.3%

1) 전학으로 인해 전년도 대비 지역별 조사대상 패널수 변동

※ 조사대상 패널수(3,449명) 대비 청소년 조사성공사례수(3,188명)의 비율: 92.4%

※ 조사가능 패널수(3,417명) 대비 청소년 조사성공 사례수(3,188명)의 비율: 93.3%

※ 조사대상 패널수(3,449명) 대비 청소년·부모 조사성공 사례수(3,106명)의 비율: 90.1%

※ 조사가능 패널수(3,417명) 대비 청소년·부모 조사성공 사례수(3,106명)의 비율: 90.9%

<표 III-2> 중2 패널 3차년도 조사의 표본유지율

	조사대상 패널수 ¹⁾	조사가능 패널수	조사성공 사례수	조사대상패널수 대비 조사성공사 례수(%)	조사가능패널수 대비 조사성공사 례수(%)
서울특별시	600	584	520	86.7%	89.0%
인천광역시	198	191	175	88.4%	91.6%
경기도	775	761	685	88.4%	90.0%
강원도	121	119	107	88.4%	89.9%
대전광역시	102	101	97	95.1%	96.0%
충청도	249	247	237	95.2%	96.0%
광주광역시	138	137	124	89.9%	90.5%
전라도	241	238	221	91.7%	92.9%
부산광역시	254	250	234	92.1%	93.6%
울산광역시	108	107	105	97.2%	98.1%
대구광역시	215	214	190	88.4%	88.8%
경상도	446	442	429	96.2%	97.1%
제주도	2	2	1	50.0%	50.0%
합계	3,449	3,393	3,125	90.6%	92.1%

1) 전학, 이사 등으로 인해 전년도 대비 지역별 조사대상 패널수 변동

- ※ 조사대상 패널수(3,449명) 대비 청소년 조사성공사례수(3,125명)의 비율: 90.6%
- ※ 조사가능 패널수(3,393명) 대비 청소년 조사성공사례수(3,125명)의 비율: 92.1%
- ※ 조사대상 패널수(3,449명) 대비 청소년·부모 조사성공사례수(3,081명)의 비율: 89.3%
- ※ 조사가능 패널수(3,393명) 대비 청소년·부모 조사성공사례수(3,081명)의 비율: 90.8%

2. 주요 변수의 측정

현재 선호직업 설정유무는 “학생은 장래 얻고자 하는 구체적인 직업(창업 포함)을 정해 놓으신 상태인가요?”로 묻고 ‘구체적으로 확정해 놓은 직업이 있다’, ‘확정적이지는 않지만 대강 생각해 놓은 직업이 있다’, ‘아직 정해놓

은 장래의 직업이 없다'로 측정하였다.

현재 설정해 놓은 선호직업은 “학생의 장래 희망직업은 무엇입니까? 희망하는 순서대로 2개까지만 구체적으로 적어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묻고 직접 주관식 기입으로 측정하였다. 실제 분석에서는 가장 희망하는 첫 번째 직업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직업가치 중 외적 보상에 대한 측정은 1) 돈을 많이 벌 수 있음, 2) 권력이 많음, 3) 사회적 명예(위신)가 높음의 세 가지 문항을 제시하고 각각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그렇지 않은 편이다/보통이다/그런 편이다/매우 그렇다’의 5점 리커어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내적 보상에 대한 측정은 1) 더 배우고 발전할 수 있음, 2) 나의 소질이나 적성에 맞음의 두 가지 문항을 제시하고 각각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그렇지 않은 편이다/보통이다/그런 편이다/매우 그렇다’의 5점 리커어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환경적 보상에 대한 측정은 1) 시간적 여유가 많음, 2) 쾌적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음, 3) 안정적으로 오랫동안 일할 수 있음의 세 가지 문항을 제시하고 각각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그렇지 않은 편이다/보통이다/그런 편이다/매우 그렇다’의 5점 리커어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자율·창조적 보상에 대한 측정은 1) 업무의 자유재량권(스스로 결정할 수 있음)이 많음, 2) 반복되지 않고 다양한 일을 할 수 있음, 3) 아이디어를 내고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음의 세 가지 문항을 제시하고 각각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그렇지 않은 편이다/보통이다/그런 편이다/매우 그렇다’의 5점 리커어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사회적 보상에 대한 측정은 1) 사회에 봉사할 수 있음, 2) 혼자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일할 수 있음의 두 가지 문항을 제시하고 각각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그렇지 않은 편이다/보통이다/그런 편이다/매우 그렇다’의 5점 리커어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성별은 ‘남자’, ‘여자’의 두 가지 척도로 측정하였다. 실제 분석시에는 여자를 0으로 남자를 1로 재코딩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학업성취 변수는 지난 학기(2005년 1학기) 반성적으로 측정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성역할 태도 변수는 전통적인 여성역할 태도 변수와 전통적인 남성역할 태도 변수의 둘로 나뉘 측정하였다. 전통적인 여성역할 태도 변수는 1) 여자는 사회적 성공보다 좋은 남자를 만나는 것이 더 중요하다, 2) 여자는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기보다 남의 의견을 따르는 것이 더 보기 좋다, 3) 여자는 양전하고 순종하는 것이 여자답고 좋다는 세 가지 문항을 제시하고 각각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그렇지 않은 편이다/보통이다/그런 편이다/매우 그렇다’의 5점 리커어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전통적인 남성역할 태도 변수는 1) 남자에게는 사회적 성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2) 남자는 다른 사람의 의견을 따르기 보다는 자신의 주장을 펼칠 수 있어야 한다, 3) 남자는 어느 정도 남을 지배할 줄 알아야 남자답다는 세 가지 문항을 제시하고 각각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그렇지 않은 편이다/보통이다/그런 편이다/매우 그렇다’의 5점 리커어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IV. 분석결과

1. 선호직업 선정 유무
2. 선호직업의 특성
3. 직업가치의 특성

IV. 연구결과

1. 선호직업 선정 유무

선호직업의 분포 특성과 직업가치의 분포 특성을 살펴 보기 전에, 여기서는 먼저 고등학교 1학년 청소년들의 장래 선호직업 선정 유무의 분포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고등학교 1학년 청소년기가 진로탐색기인 중학교 시기를 지나 서서히 잠정적인 진로를 설정하고 준비하는 단계임을 감안하면 대다수의 고등학교 1학년 청소년들이 자신의 장래 선호직업을 이미 선정해 놓고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표 IV-1>은 고등학교 1학년 청소년들의 장래 선호직업 유무의 분포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현재 고등학교 1학년 청소년들의 77.9%가 자신의 장래 선호직업을 잠정적으로 선정해 놓고 있으며 22.1%만이 자신의 장래 선호직업을 아직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교 1학년 청소년기가 자신의 잠정적인 진로를 설정하고 서서히 진로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준비하는 단계임을 감안하면 자신의 장래 선호직업을 아직 설정하지 못하고 있는 22.1%의 청소년들에 대한 직업·진로 탐색교육의 필요성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표 IV-1> 선호직업 선정 유무-전체(빈도, %)

변인	선호직업 유	선호직업 무	합계
전체	2,434(77.9)	691(22.1)	3,125(100.0)

선호직업 선정 유무를 성별로 살펴보면(<표 IV-2>) 여학생은 83.1%, 남학생은 남학생은 77.9%가 자신의 선호직업을 선정해 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약간 더 많이 자신의 선호직업을 선정해 놓고 있는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표 IV-2> 선호직업 선정유무-성별(빈도, %)

변인	선호직업 유	선호직업 무	합계	
여학생	1,290(83.1)	263(16.9)	1,553(100.0)	$\chi^2=48.04^{***}$
남학생	1,144(72.8)	428(27.2)	1,572(100.0)	

* p < .05, ** p < .01, *** p < .001

선호직업 선정유무의 분포특성을 계열별로 살펴 보면(<표 IV-3>), 실업계는 71.4%, 인문계는 77.7%의 학생이 자신의 선호직업을 선정해 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인문계 고등학생들이 실업계 고등학생보다 약간 더 많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표 IV-3> 선호직업 선정유무-계열별(빈도, %)

변인	선호직업 유	선호직업 무	합계	
실업계	511(71.4)	205(28.6)	716(100.0)	$\chi^2=21.76^{***}$
인문계	1,820(79.7)	464(20.3)	2,284(100.0)	

* p < .05, ** p < .01, *** p < .001

이상의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한국의 고등학교 1학년 청소년들은 77.9%, 그러니까 10명 중 8명가량이 자신의 선호직업을 선정해 놓고 있는 상태이며,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이, 실업계 학생보다는 인문계 학생이 약간 더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2. 선호직업의 특성

1) 선호직업의 실태

다음으로 고등학교 1학년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선호직업의 분포 특성은 어떠한지 그 실태에 대해 살펴 보았다. 문화관광부(2001), 삼성경제연구소(2003), 강영배(2004a; 2004b) 등의 연구 및 분석결과에 의하면 한국의 청소년들은 교사, 의사와 같이 자아실현과 동시에 사회경제적 지위의 획득이 가능한 전문적 영역의 직업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4>는 고등학교 1학년 청소년들의 선호직업의 분포 특성을 통계청 표준직업분류기준에 기준해 분석한 것이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의사, 교사 등의 직업이 위치하고 있는 전문가 직업을 선호하고 있는 청소년들이 전체의 70.9%(의회의원,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까지 포함하면 76.3%)를 차지하여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서비스 종사자 직업을 선호하고 있는 청소년들이 12.2%로 그 뒤를 잇고 있다. 다른 직업군에 대한 선호 빈도는 미미한 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의 연구결과와 그대로 일치하는 것으로 한국 청소년들의 전문직 선호경향 특성을 알 수 있다.

<표 IV-4> 선호직업 특성의 분포-전체(빈도, %)

변인	의회의원,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전문가	기술공 및 준전문가	사무 종사자	서비스 종사자
전체	125 (5.4)	1,633 (70.9)	101 (4.4)	69 (3.0)	282 (12.2)

변인	판매 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	군인	합계
전체	8 (.3)	46 (2.0)	39 (1.7)	2,303 (100.0)

선호직업 특성의 분포를 성별로 나눠 살펴보면(<표 IV-5>), 전문가 직업군의 경우 여학생들이 74.5%, 남학생들이 66.7%의 분포를 나타내 전문직의 경우 여학생들의 선호가 남학생들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문직 중 한국사회에서 직업적 이미지가 남성보다는 여성적 이미지에 가까운 교사직에 대해 남자청소년보다는 여자청소년들이 더 선호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강영배 2004a, 2004b). 그 외 서비스 및 판매종사자 직군도 남자 청소년보다는 여자청소년들의 선호도가 높다. 그 외 의회임원,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기술공 및 준전문가, 사무종사자, 기능직, 군인 등 여타 직업군에서는 남자청소년들의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5> 선호직업 특성의 분포-성별(빈도, %)

변인	의회의원,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전문가	기술공 및 준전문가	사무 종사자	서비스 종사자
여학생	50(4.0)	927(74.5)	27(2.2)	23(1.8)	188(15.1)
남학생	75(7.1)	706(66.7)	74(7.0)	46(4.3)	94(8.9)

변인	판매 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	군인	합계	
여학생	6(.5)	15(1.2)	8(.6)	1,244(100.0)	$\chi^2=102.71^{***}$
남학생	2(.2)	31(2.9)	31(2.9)	1,059(10.0)	

* p < .05, ** p < .01, *** p < .001

선호직업 특성의 분포를 계열별로 나눠 살펴보면(<표 IV-6>), 전문가 직업군의 경우 인문계 청소년들이 76.4%, 실업계 청소년들이 50.0%의 분포를 나타내 인문계 청소년들이 실업계 청소년들보다 전문직에 대한 선호도가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등학교에 진학함에 따라 자신이 속해 있는

계열별로 어느 정도는 진로가 잠정적으로 확정되어 나타난 결과로 보여진다. 고위직에서도 인문계 청소년들이 실업계 청소년들보다 선호도가 높다. 반면, 기술공 및 준전문가, 서비스 및 판매종사자, 기능직 등에 대한 선호도는 인문계 청소년보다는 실업계 청소년들의 선호도가 훨씬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교 진학에 따라 계열별로 직업선호에 뚜렷한 차이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표 IV-6> 선호직업 특성의 분포-계열별(빈도, %)

변인	의회의원,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전문가	기술공 및 준전문가	사무 종사자	서비스 종사자
실업계	18(3.8)	234(50.0)	35(7.5)	17(3.6)	115(24.6)
인문계	96(5.5)	1,327(76.4)	63(3.6)	51(2.9)	156(9.0)

변인	판매 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	군인	합계	
실업계	6(1.3)	32(6.8)	11(2.4)	468(100.0)	$\chi^2=206.88^{***}$
인문계	1(1)	14(8)	28(1.6)	1,736(100.0)	

* p < .05, ** p < .01, *** p < .001

이상의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고등학교 1학년 청소년들은 의사, 교사 등의 직업이 위치하고 있는 전문직을 청소년의 10명 중 7명 가량이라는 압도적인 숫자가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서비스 종사자 직업군이 그 뒤를 잇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여학생들이 여성적 이미지가 강한 전문직, 서비스 및 판매직에 대한 선호도가 높고, 남자들은 그 외 의회임원, 고위 임직원 및 관리자, 기술공 및 준전문가, 사무종사자, 기능직, 군인 등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계열별로도 인문계 청소년들이 실업계 청

소년들보다 전문직, 고위직에 대한 선호도가 높고, 실업계 청소년들은 기술공 및 준전문가, 서비스 및 판매종사자, 기능직 등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의 고등학교 1학년 청소년들이 전문직에 대한 선호가 압도적으로 높은 가운데서도, 성별, 계열별로 선호직업에 대한 뚜렷한 차이가 존재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2) 직업선호의 관련요인

그럼 고등학교 1학년 청소년들 중 어떤 특성을 갖는 청소년들이 자신의 장래 희망직업으로 전문직을 선택하고 있는가? 전문직을 선호하는 청소년들의 개인적, 가정배경적 관련 특성은 어떠한가?

우리는 앞의 이론적 논의에서 직업선호의 관련요인으로 성별, 성역할 고정관념, 부모의 학력, 직업, 가구소득 등이 논의되어 왔음을 살펴 본 바가 있다. 여기에서는 이론적 논의에 따라 고등학교 1학년 청소년들의 성별(남학생=1 더미), 계열별(인문계열=1 더미), 학업성취, 성역할 태도, 부의 학력, 부의 직업(고위/전문/사무직=1, 그 외=0 더미), 월평균 가구소득을 독립변수로 고위·전문직 선호(=1, 그 외=0 더미)를 종속변수로 하는 로지스틱 회귀모형을 구성하여 분석하여 보았다. <표 IV-7>은 고위·전문직 선호에 대한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분석결과를 살펴 보면, 자연계열 청소년보다는 인문계열 청소년들이 고위·전문직군을 선호하는 경향이 더 강하며($\text{Exp(B)}=3.791^{***}$), 아버지의 학력이 높은 집안의 청소년들일수록 고위·전문직군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ext{Exp(B)}=1.056^*$). 즉, 인문계열에 재학 중일수록, 아버지의 학력이 높을수록 청소년들의 고위·전문직 선호 경향이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7> 고위· 전문직 선호에 대한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고위· 전문직 선호
	Exp(B)
상수	1.419
성별(남학생=1)	.795
계열별(인문계열=1)	3.791 ^{***}
학업성취	.986 ^{**}
성역할 태도	
-전통적인 여성역할	.984
-전통적인 남성역할	.997
부학력	1.056 [*]
부직업	
-서비스/판매/기능직등(0)	-
-고위직/전문직/사무직(1)	1.020
월평균 가구소득	1.000
N	1,689
-2LL	1607.024
Pseudo R2 (Nagelkerke R2)	.138

* p < .05, ** p < .01, *** p < .001

3. 직업가치의 특성

1) 직업가치의 실태

다음으로 고등학교 1학년 청소년들이 선호직업에 부여하고 있는 직업가치의 특성은 어떠한 지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여기에서는 앞의 이론적 논의에 따라 청소년들의 직업가치 개념을 외적보

상, 내적보상, 환경적 보상, 자율·창조적 보상, 사회적 보상의 5가지 하위범주로 나눠 분석을 실시하였다. 외적 보상의 개념은 돈을 많이 벌수 있음·권력이 많음·사회적 명예가 높음의 세 가지 하위 문항을 포함하고 있고, 내적 보상의 개념은 더 배우고 발전할 가능성·소질과 적성에 부합함의 두 가지 문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환경적 보상의 개념은 시간적 여유가 많음·쾌적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음·안정적으로 오랫동안 일할 수 있음의 세 가지 문항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자율·창조적 보상의 개념은 자유재량권이 많음·반복되지 않고 다양한 일을 할 수 있음·아이디어를 내고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음의 세 가지 문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사회적 보상의 개념은 사회에 봉사할 수 있음·혼자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일할 수 있음의 두 가지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각각의 문항은 ‘(1) 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은 편이다’, ‘(3) 보통이다’, ‘(4) 그런 편이다’, ‘(5) 매우 그렇다’의 5점 리커어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표 IV-8>은 고등학교 1학년 청소년들이 자신의 선호직업에 대해 부여하는 직업가치를 외적보상, 내적보상, 환경적 보상, 자율·창조적 보상, 사회적 보상의 다섯 가지 하위 영역의 평균값으로 나타낸 것이다. 우선, 한국의 고등학교 1학년 청소년들은 자신의 선호직업 선택에 대해 ‘소질과 적성 및 더 배우고 발전할 가능성’을 의미하는 내적 보상에 가장 높은 점수(평균=3.90)를 부여하고 있다. 다음으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일하고 사회에 봉사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사회적 보상에 두 번째로 높은 점수(평균=3.69)를 부여하고 있다. 또한 ‘시간적 여유, 쾌적한 환경 및 안정성’을 의미하는 직업가치인 ‘환경적 보상’에도 비교적 높은 점수(평균=3.27)를 부여하고 있다. 반면, ‘자유재량권·다양성·새로운 일’을 의미하는 ‘자율·창조적 보상(평균=3.12)과 ‘돈, 명예, 권력’을 의미하는 ‘외적 보상(평균=3.04)’에는 평균 정도의 점수를 부여하고 있다. 즉, 우리 고등학교 청소년들은 자신들의 선호직업에 대한 직업가치를 내적 보상 > 사회적 보상 > 환경적 보상 > 자율·창조적 보상 > 외적 보상의 순으로 부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표 IV-8> 직업가치 특성의 분포-전체

변인	외적 보상	내적 보상	환경적 보상	자율·창조 적 보상	사회적 보상
전체 평균	3.04	3.90	3.27	3.12	3.69
N	2,316	2,334	2,315	2,219	2,332

이러한 결과는 앞의 이론적 논의에서 살펴 보았던 한국 청소년들의 직업 의식이 매우 현실적인 기성세대와는 달리 직업의 내재적, 이상적 가치를 중요시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공보처(1996)의 분석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또한, 한국의 청소년들은 자신들의 직업선택에 있어 직업 그 자체가 주는 보람과 그것을 통한 사회적인 성취를 위해 직업을 가진다는 김정숙 외(1999)의 연구 결과와도 일치하는 분석결과이다. 즉, 한국 청소년들은 내적, 사회적 보상을 중요시하며 동시에 자율·창조적, 외적 보상도 무시하지는 않는 직업가치를 지니고 있음이 다시 한번 입증되었다고 볼 수 있다.

고등학교 1학년 청소년들의 직업가치 특성의 분포를 성별로 나눠 살펴보면(<표 IV-9>) 남학생과 여학생 간에 내적 보상, 사회적 보상, 환경적 보상, 외적 보상 등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자율·창조적 보상만 남학생들이 여학생들에 비해 약간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9> 직업가치 특성의 분포-성별

변인	외적 보상	내적 보상	환경적 보상	자율·창조 적 보상	사회적 보상
여학생	3.07	3.92	3.28	3.07	3.70
남학생	3.01	3.88	3.25	3.19	3.68
F	2.928	2.359	.822	10.618*	.312
N	2,316	2,334	2,315	2,219	2,332

*p < .05, **p < .01, ***p < .001

고등학교 1학년 청소년들의 직업가치 특성의 분포를 계열별로 나눠 살펴 보면(<표 IV-10>), 인문계 청소년들이 내적 보상, 사회적 보상, 환경적 보상, 외적 보상의 모든 직업가치의 측면에서 실업계 청소년들보다 더 높은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율·창조적 보상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이 동일하다.

<표 IV-10> 직업가치 특성의 분포-계열별

변인	외적 보상	내적 보상	환경적 보상	자율·창조 적 보상	사회적 보상
실업계	2.93	3.77	3.10	3.16	3.58
인문계	3.06	3.92	3.32	3.10	3.71
F	10.319***	20.517***	29.423***	1.808	12.815***
N	2,215	2,231	2,214	2,127	2,232

* p < .05, ** p < .01, *** p < .001

이상의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한국의 고등학교 1학년 청소년들은 자신의 선호직업에 대한 직업가치를 내적 보상 > 사회적 보상 > 환경적 보상 > 자율·창조적 보상 > 외적 보상의 순으로 부여하고 있는데, 한국 청소년들은 내적, 사회적 보상을 중요시하며 동시에 자율·창조적, 외적 보상도 무시하

지는 았는 직업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학생과 여학생 간에 내적 보상, 사회적 보상, 환경적 보상, 외적 보상 등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열별로는 인문계 청소년들이 내적 보상, 사회적 보상, 환경적 보상, 외적 보상의 모든 직업가치의 측면에서 실업계 청소년들보다 더 높은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직업가치의 관련요인

그럼 어떤 요인들이 이러한 직업가치를 형성하는 관련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가? 즉, 고등학교 1학년 청소년들 중 어떤 개인적, 가정배경적 특성을 갖는 청소년들이 내적 보상, 사회적 보상, 환경적 보상, 자율·창조적 보상, 외적 보상을 자신의 직업가치로 중요시하고 있는가? 내적 보상 등의 직업가치의 결정요인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우리는 앞의 이론적 논의에서 직업가치의 관련요인으로 성별, 성역할 고정관념, 부모의 학력, 직업, 가구소득 등이 논의되어 왔음을 살펴 본 바가 있다. 여기에서는 이론적 논의에 따라 고등학교 1학년 청소년들의 성별(남학생=1 더미), 계열별(인문계열=1 더미), 학업성취, 성역할 태도, 부모의 학력, 부모의 직업(고위/전문/사무직=1, 그 외=0 더미), 월평균 가구소득을 독립변수로 하고, 내적 보상, 사회적 보상, 환경적 보상, 자율·창조적 보상, 외적 보상을 종속변수로 하는 회귀모형을 구성하여 분석하였다. <표 IV-11>은 직업가치의 다섯 가지 하위 개념을 종속변수로 하는 OLS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분석결과를 살펴 보면, 우선, 직업가치의 내적 보상에는 계열, 학업성취도, 성역할 태도, 부모의 학력 변수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문계열 학생일수록($\beta = .052^*$), 학업성취도가 높을수록($\beta = -.069^{**}$), 전통적인 여성 성역할 태도를 지니지 않은 사람일수록($\beta = -.162^{***}$), 부모의 학력이 높을수록($\beta = .074^{**}$) 내적 보상을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보상에는 전통적인 남성 성역할 태도 변수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통적인 남성 성역할 태도를 지닌 사람일수록($\beta =$

.094^{***}) 직업가치의 사회적 보상을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1> 직업가치에 대한 OLS 회귀분석

변인	외적 보상	내적 보상	환경적 보상	자율·창조 적 보상	사회적 보상
	Beta	Beta	Beta	Beta	Beta
성별(남학생=1)	-.035	.028	-.040	.100 ^{***}	.012
계열별(인문계열=1)	.020	.052 [*]	.079 ^{**}	-.065 [*]	.047
학업성취	-.104 ^{***}	-.069 ^{**}	-.078 ^{***}	.053 [*]	-.026
성역할 태도					
-전통적인 여성역할	-.024	-.162 ^{***}	.014	-.080 ^{**}	-.038
-전통적인 남성역할	.122 ^{***}	.040	.030	-.019	.094 ^{***}
부학력	-.016	.074 ^{**}	-.010	.037	-.010
부직업					
-서비스/판매/기능직등(0)	-	-	-	-	-
-고위직/전문직/사무직(1)	.073 ^{**}	-.046	.030	.018	.026
월평균 가구소득	.063 [*]	-.014	.015	.042 [*]	.015
N	1,728	1,741	1,724	1,664	1,745
R ²	.042 ^{***}	.040 ^{***}	.017 ^{***}	.020 ^{***}	.014 ^{**}
Adj R ²	.037 ^{***}	.036 ^{***}	.013 ^{***}	.015 ^{***}	.010 ^{**}

* p < .05, ** p < .01, *** p < .001

환경적 보상에는 계열, 학업성취도 변수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계열보다는 인문계 청소년일수록($\beta = .079^{**}$), 학업성취도가 높을수록($\beta = -.078^{***}$) 직업가치의 환경적 보상을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율·창조적 보상에는 성별, 계열별, 학업성취도, 전통적인 여성 성역할 태도, 월평균 가구소득 변수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학생보다는 남학생일수록($\beta = .100^{***}$), 실업계열 청소년일수록($\beta = -.065^*$), 학업

성취도가 낮을수록($\beta = .053^*$), 전통적인 여성 성역할태도를 지니지 않은 청소년일수록($\beta = -.080^{**}$), 월평균가구소득이 높을수록($\beta = .042^*$) 직업가치의 자율·창조적 보상을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외적 보상에는 학업성취도, 전통적인 남성 성역할 태도, 부의 직업, 월평균 가구소득 변수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성취도가 높을수록($\beta = -.104^{***}$), 전통적인 남성 성역할 태도를 지닐수록($\beta = .122^{***}$), 부의 직업이 고위·전문·사무직일수록($\beta = .073^{**}$), 월평균 가구소득이 높을수록($\beta = .063^*$), 직업가치의 외적 보상을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고등학교 1학년 청소년들의 직업가치는 성별, 계열별, 학업성취, 성역할 태도 변수와 같은 개인변수의 영향을 많이 받으며 가정배경 변인의 영향은 덜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의 이론적 논의에서 살펴보았던 김정숙(2006)의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V. 결 론

1. 연구의 요약
2. 정책적 제언

V. 결 론

1. 연구의 요약

이 연구에서는 한국청소년패널조사(KYPS) 3차년도 자료에 나타난 중학교를 마치고 고등학교에 진학한 고등학교 1학년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첫째, 이들이 현재 얼마나 자신의 장래 직업을 잠정적으로 선택하고 있는지, 둘째, 이들이 잠정적으로 선택하고 있는 선호 직업의 특성은 어떠한지, 그리고 셋째, 잠정적으로 선택한 선호 직업에 부여하고 있는 직업적 가치는 어떠한 특성을 띠고 있는 지 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분석결과를 요약,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선호직업 선정 여부의 분포 특성

현재 고등학교 1학년 청소년들의 77.9%가 자신의 장래 선호직업을 잠정적으로 선정해 놓고 있으며 22.1%만이 자신의 장래 선호직업을 아직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교 1학년 청소년기가 자신의 잠정적인 진로를 설정하고 서서히 진로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준비하는 단계임을 감안하면 자신의 장래 선호직업을 아직 설정하지 못하고 있는 22.1%의 청소년들에 대한 직업·진로 탐색교육의 필요성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이, 실업계 학생보다는 인문계 학생이 약간 더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2) 선호직업의 실태

한국의 고등학교 1학년 청소년들의 70%가량은 의사, 교사 등의 직업이 위치하고 있는 전문직을 선호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서비스직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여학생들이 여성적 이미지가 강한 전문직, 서비스 및 판매직에 대한 선호도가 높고, 남자들은 그 외 의회임원, 고위임

직원 및 관리자, 기술공 및 준전문가, 사무종사자, 기능직, 군인 등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계열별로도 인문계 청소년들이 실업계 청소년들보다 전문직, 고위직에 대한 선호도가 높고, 실업계 청소년들은 기술공 및 준전문가, 서비스 및 판매종사자, 기능직 등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의 고등학교 1학년 청소년들이 전문직에 대한 선호가 압도적으로 높은 가운데서도, 성별, 계열별로 선호직업에 대한 뚜렷한 차이가 존재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3) 직업선호 관련요인

자연계열 청소년보다는 인문계열 청소년들이 고위·전문직군을 선호하는 경향이 더 강하며($\text{Exp}(B)=3.791^{***}$), 아버지의 학력이 높은 집안의 청소년들일수록 고위·전문직군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ext{Exp}(B)=1.056^*$). 즉, 인문계열에 재학 중일수록, 아버지의 학력이 높을수록 청소년들의 고위·전문직 선호 경향이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4) 직업가치의 실태

한국의 고등학교 1학년 청소년들은 자신의 선호직업에 대한 직업가치를 내적 보상 > 사회적 보상 > 환경적 보상 > 자율·창조적 보상 > 외적 보상의 순으로 부여하고 있는데, 내적, 사회적 보상을 중요시하며 동시에 자율·창조적, 외적 보상도 무시하지 않는 직업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학생과 여학생 간에 내적 보상, 사회적 보상, 환경적 보상, 외적 보상 등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열별로는 인문계 청소년들이 내적 보상, 사회적 보상, 환경적 보상, 외적 보상의 모든 직업가치의 측면에서 실업계 청소년들보다 더 높은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 직업가치 관련요인

전반적으로 고등학교 1학년 청소년들의 직업가치는 성별, 계열별, 학업성

취, 성역할 태도 변수와 같은 개인변수의 영향을 많이 받으며 가정배경 변인의 영향은 덜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정책적 제언

1) 청소년 직업·진로교육의 위상강화

중·고등학교 시기는 진로를 탐색·선택·준비(career exploration and preparation)하는 단계이다. 이 시기 청소년들은 여러 가지 체험을 통해 다양한 직업세계를 살펴보고, 살펴본 직업세계에 대한 자신의 직업적성, 흥미 등의 적합성 여부를 검토하고, 자신의 진로선택의 폭을 점차 좁히거나 잠정적인 진로를 선택하여 구체적인 진로준비에 이르러야만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의 분석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 고등학교 1학년 청소년들의 77.9%가 자신의 장래 선호직업을 잠정적으로 선정해 놓고 있는 반면, 22.1%는 아직 자신의 장래 선호직업을 선정해 놓고 있지 못한 상태다.

따라서 우리 청소년들에게 자신의 적성과 능력을 고려한 현실적으로 적절한 진로탐색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은 ‘대학입시위주의 교육편제의 한 하위부문으로서의 학교 진로교육’의 소극적인 형태를 벗어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현재 한국사회에서 직업계층에 따른 사회불평등 현상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고 대학입학여부가 그 중요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는 상태에서 ‘대학입시위주의 교육풍토’는 쉽게 사그러들지 않을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대학입시위주의 교육편제의 한 하위부문으로서의 학교 진로교육’은 자신의 적성과 능력을 고려한 현실적으로 적절한 진로탐색’을 관철시키기가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와 같은 대학입시위주의 교육편제의 한 하위부문으로서의 학교 진로교육의 소극적인 형태보다는 학교 진로교육이 상위개념에 서고 학교 교과교육이 그 하위부문으로 존재하는 형태의 ‘보다 적극적인 학교 진로교육체제(이지연, 2005)’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1) 진로, 직업관련 교과수업의 확대 강화

학교 교과과정의 상당부분을 진로, 직업관련 교과목을 배우는 시간으로 할애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학교에서 진행되고 있는 「진로와 직업」 교과의 확대 혹은 필수과목화(이지연, 2005)하는 것이 중요하며, 시간도 지금보다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야만 ‘대학입시위주의 교육편제의 한 하위부문으로서의 학교 진로교육의 소극적인 인식에 머물러 있는 청소년들에게 진로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일깨울 수 있게 될 것이다.

(2) 일 체험의 필수화(이지연, 2005)

학교 교과과정에서 직업진로교육의 위상을 강화하는 것 못지 않게 실질적인 체험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다. 주지하다시피, 청소년기의 진로탐색은 자신의 직업적성, 흥미, 능력 등에 대해 탐구해 가는 자아탐색과정, 직업의 중요성, 직업의 종류, 자신의 직업전망에 대해 탐구해 가는 직업세계탐색과정과 함께 실제 직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체험하면서 배워가는 직업현장탐색과정 등이 함께 어우러져야 성과를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진로, 직업관련 교과수업의 확대 강화와 함께 일체험의 필수화를 정책적으로 제도화시키는 것이 함께 필요할 것이다.

(3) 진로탐색프로그램의 강화

진로, 직업관련 교과수업의 확대 강화와 일 체험의 필수화에 이어 청소년들이 실제로 잘 만들어진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자신의 실질적인 진로탐색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와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첫째, 학교 교육과정의 특별활동, 재량활동 시간을 자신의 진로탐색을 위한 자아탐색 및 직업탐색의 시간으로 실질적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음으로, 학생들이 방과후, 주말, 방학시간을 사교육에 할애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청소년단체의 직업체험프로그램에 참여하여 다양한 진로 체험으로 채울 수 있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

2)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진로교육 강화

앞의 분석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의 고등학교 1학년 청소년들의 70% 가량이 의사, 교사 등 전문직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신의 선호직업에 대한 직업가치를 내적 보상 > 사회적 보상 > 환경적 보상 > 자율·창조적 보상 > 외적 보상의 순으로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 고등학교 청소년들의 잠재적 직업선택의 경향이 자신의 적성 및 능력을 고려한 진로탐색 및 준비의 결과로써의 ‘여러 분야의 다양한 직업을 선호하는 형태’를 보이기보다는 직업계층에 따른 사회불평등 현상이 부모의 선호에 의해 우리 청소년들에게 투영된 결과로써의 ‘교사, 의사 등 일부 소수의 안정적이고 고소득인 직업을 선호하는 형태’의 특성을 보이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진로교육의 위상을 강화하되, 청소년들이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진로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진로교육 프로그램의 초점을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진로교육 강화에 맞춰야 할 것이다.

(1) 에딘버러 포상프로그램 방식의 진로체험 프로그램 강화

진로체험 프로그램의 구성 및 운영방식을 사회에서 일방적인 기준을 설정해놓고 일률적으로 평가하는 방식보다는 에딘버러 포상프로그램 방식을 원용하여, 타인과의 경쟁은 배제한 상태에서 지도자와의 협의하에 청소년이 스스로 자신에게 알맞은 활동목표와 활동기간을 설정하여 프로그램에 참여한 후 지도자가 성취정도를 평가하여 ‘(가칭)청소년진로체험인증서’를 수여함으로써 성취감도 맞보고 사회적으로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커리어 포트폴리오(이지연, 2005)의 작성도 고려해볼 만하다.

(2) 청소년 아르바이트의 진로·직업체험 프로그램화

우리 중고등학교 청소년들의 30%-40%가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

‘아르바이트’를 ‘불완전 아르바이트 여건으로부터의 보호’, ‘건전 아르바이트
업종소개 및 확장’등의 사회제도적 보완과정을 거쳐 진로체험 프로그램으로
양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보는 것도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참 고 문 헌

- 강영배(2004a), 韓国における青少年の職業意識構造に関する研究, 東北大学, 博士論文.
- 강영배(2004b), 중학교 청소년의 직업선택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 청소년 패널 조사(KYPS) II, 157-188, 한국청소년개발원.
- 강영배(2004c), 청소년의 사회참여활동이 직업의식 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 04-R23, 한국청소년개발원.
- 강영배(2005), 韓国における高校生の職業期待の影響要因に関する研究, 日本研究 12, 66-94.
- 공보처(1969), 한국인의 직업의식조사.
- 권일남(2001), 청소년의 직업의식에 관한 조사, 직업교육연구, 33(2), 117-130.
- 김병숙·강일규·진미석·장원섭·김해동·권진희·정윤경·김현식·이헌구(1998), 한국인의 직업의식조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김정숙(2006), 학생의 직업가치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연구, 17(1), 79-102.
- 김진석(1992), 고등학교 학생들의 직업기대와 관련변인, 서울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남승규(1995), 소비자 의사결정에서 가치의 영향, 성균관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맹영임(2000), 청소년의 진로의식 조사연구, 한국청소년개발원.
- 문화관광부(2001), 청소년의 직업체험활동 활성화방안 연구.
- 백영균(1980), 초·중·고등학생의 직업에 대한 가치관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삼성경제연구소(2003), 중고생 경제의식 조사.
- 성태제·시기자(2001), Holland와 Prediger의 직업흥미이론에 근거한 고등학생용 직업 선호도 검사 개발과 양호도 검증, 교육심리연구, 15(4), 269-295.
- 양한주(1998), 중·고등학생의 직업가치관 및 직업선호도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양한주·정철영(1998), 중학생의 직업 가치관과 직업 선호도에 관한 연구, 직업교육연구, 17(1), 41-54.
- 윤숙자(1993), 학생들의 직업인식에 관한 조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호열·김영숙(1998), 전문대학생의 일의 가치관에 따른 진로의식 성숙 수준의 분석, 한국지로상담학회지, 3(1), 55-77.
- 이관춘(2002), 청소년과 기업체 사이의 가치관 병립에 관한 연구 - 서울지역을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9(3), 317-336.

- 이광호·맹영임·임성택(2000), 청소년의 효과적인 진로탐색을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방안 연구.
- 이경상(2004). 청소년 직업탐색프로그램. 제2회 4-H지도교사 종합과정. 한국 4-H본부.
- 이옥(1993). 한국 학생청소년의 직업개념인식과 직업가치 연구, 한국청소년연구, 15 (겨울), 32-44.
- 이정언(2000). 일에 대한 가치관의 고찰, 경영연구, 7(1), 87-101.
- 이지연(2005). 학교에서의 진로지도 혁신 방안.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제 23차 HRD 정책포럼 발표논문.
- 이현립(1997). 성별 및 연령에 따른 직업가치관, 영남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학생생활 연구, 8, 17-24.
- 이현립(1997). 대학생의 내·외적 일에 대한 가치관과 진로의식성숙에 관한 연구, 한국 심리학회지; 상담과 심리치료, 9(1), 289-310.
- 이현주(2004). 개인적 배경과 직업가치, 일의 동기적 지향이 직업선택 확신에 미치는 영향, 교육심리연구, 18(2), 17-33.
- 장원섭(2000), 시간제 취업이 고등학생의 직업의식에 미치는 영향 분석, 직업능력개발 연구 2, 1-27.
- 정우현(1984), 고교생의 직업선택과 관련변인에 관한 연구, 직업교육연구, 3(1), 84-97.
- 조아미(2000), “청소년의 진로의사결정과 진로성숙의 결정요인으로서의 진로의사결정 효능감.” 교육학 연구, 38(4), 43-62.
- Blunstein, D. L.(1989). The role of goal instability and career self-efficacy in the career exploration proces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35, 194-203.
- Centers, R.(1949). The psychology of social class. Princeton,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 Crites, J. O. (1969), Vocational Psychology, New York : McGraw-Hill.
- Fionrentine, R.(1988). Increasing similarity in the values and life plans of male and female college students? Evidence and implication, Sex roles, 18, 143-158.
- Ginzberg, E. Ginsburg, S. W., Axelrad, S., & Herma, J. L.(1951). Occupational choice: An approach to a general theory.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Kluckhohn, C.(1962), Values and value orientation in the theory. In J. Parsons & E.A. Shils(Eds.), Toward a general theory of action. New York: Harper & Row.
- Krau, E.(1987). The crystallization of work values in adolescence : A sociocultural approach,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30.

- Leong, F.(1991). Career development attributes and occupational values of Asian American and White American college students,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39, 221-230.
- Linda Miller and Jacqueline Budd(1999), The Development of Occupational Sex-role Stereotypes, Occupational Preferences and Academic Subject Preferences in Children at Ages 8, 12, 16, *Educational Psychology* 19(1), 17-35.
- Miller, M. F.(1974). Relationship of vocational maturity to work value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5, 367-371.
- Rosenberg, M.(1957). *Occupation and values*, Glance: The Free Press.
- Schulenberg, J., Vondracek, F. & Kim, J.(1993), Career certainty and short-term changes in work values during adolescence, *The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41, 268-284.
- Super, D. E(1957). *The psychology of occupation*. New York: John Wiley.
- 荒牧草平(2002). 現代高校生の学習意欲と進路希望の形成：出身階層と価値志向の効果に注目して, *教育社会学研究*, 71, 5-23.
- 有田伸他著(2002). *学歴・選抜・学校の比較社会学*, 東洋館出版社.
- 尾島史章編著(2001). *現代高校生の計量社会学—進路・生活・世代—*, ミネルウァ書房.
- 中村高康・藤田武志・有田伸著(2002), *学歴・選抜・学校の比較社会学*, 東洋館出版社.
- 柳井修(2001). *キャリア発達論—青年期のキャリア形成と進路指導の展開—*, ナカニシヤ出版.
- 宗方比佐子・渡辺直登編著(2003). *キャリア発達の心理学*, 川島書店.

연구에 도움을 주신 분들

◆ 자 문 진 ◆

해당사항 없음.

2006년 한국청소년개발원 간행물 안내

■ 기관고유과제

- 06-R01 한국 청소년 패널조사(KYPS) IV - 조사개요보고서 / 이경상·김기현
06-R01-1 청소년의 선호직업 및 직업가치 특성에 관한 연구 / 이경상·강영배
06-R01-2 청소년 아르바이트 경험에 대한 중단 분석 / 김기현·유성렬
06-R01-3 청소년 비행 및 범죄 응답패턴에 대한 중단 분석 / 김기현·민수홍
06-R02 한국 청소년 발달지표 조사 I : 결과부분 측정 지표 검증 / 김상욱·김신영·박승호·유성렬·
임지연·최지영
06-R02-1 한국 청소년 발달 지표 조사 I : 청소년 발달 종합지표 / 김상욱·김신영·박승호·유성렬·
임지연·최지영
06-R03 청소년 방과후 활동의 운영 실태와 활성화 방안 / 양계민·오승근·권두승·전명기·조대연
06-R04 북한이탈 청소년 종합대책 연구 I - 남한사회 적응과정을 중심으로 / 백혜정·길은배·
윤인진·이영란
06-R05 국제기준 대비 한국 청소년의 인권수준 실태연구 I - 청소년인권지표 개발 / 최창욱·박영균·
김진호·임성택·전성민
06-R05-1 청소년 생존권 현황과 지표개발 / 이용교·천정웅·안경순
06-R05-2 청소년 보호권 현황과 지표개발 / 황옥경·정준미
06-R05-3 청소년 발달권 현황과 지표개발 / 이중섭·박해석
06-R05-4 청소년 참여권 현황과 지표개발 / 강현아
06-R06 동북아 청소년의 역사인식·국가관 비교연구 / 오해섭·De-Ping Lu·Kazuhiko Fuwa
06-R07 청소년의 뉴미디어 이용현황과 문제점 및 대응방안 - 모바일을 중심으로 / 성운숙·박한우
06-R08 청소년 정보화 현황과 대응방안 II : 국내의 청소년 정보화 정책연구 / 이혜연·조정문·김아미
06-R08-1 청소년 정보화 현황과 대응방안 II : 청소년의 온라인 생활과 학업적응 현황 / 장근영·남주희
06-R09 위기청소년 지역사회 안전망 실태와 발전방안 / 윤철경·조흥식·김향초·이규미·우정자
06-R10 청소년 유형별 복지욕구 실태와 지원방안 / 김경준·김지혜·류명화·정익중
06-R11 학교밖 청소년의 실태와 정책적 대응방안 / 서정아·권해수·정찬석·김귀랑

■ 협동연구과제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6-18-01 청소년기 사회화과정의 국제비교 연구 I / 김현철·김은정·
손승영·이기재·박현주 (자체번호 06-R12)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6-18-02 주요 선진국의 가족 및 자녀사회화 지원정책 비교연구 -
영국, 프랑스, 호주, 핀란드를 중심으로 / 장혜경·홍승아·김혜영 (자체번호 06-R12-1)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6-18-03 일본의 가족 및 가족내 사회화 과정 연구 / 와타나베 히데키·
마츠다 시게키·무쿠오 아사코·배지혜 (자체번호 06-R12-2)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6-18-04 미국의 가족 및 가족내 사회화 과정 연구 / 김재은·김상학
(자체번호 06-R12-3)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6-18-05 독일의 가족 및 가족내 사회화 과정 연구 / 서병문·안드레아스헤네커·제스퍼 코글린 (자체번호 06-R12-4)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6-18-06 스웨덴의 가족 및 가족내 사회화 과정 연구 / 최연혁·피터 스트랜브링크 (자체번호 06-R12-5)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6-19-01 청소년 문제행동 종합대책 IV / 이춘화·윤옥경·조아미 (자체번호 06-R13)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6-19-02 가정·학교에서의 청소년 문제행동 대책 / 김은경·홍영오 (자체번호 06-R13-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6-19-03 지역사회 중심의 청소년 문제행동 대책 / 김영지·방은령·박정선 (자체번호 06-R13-2)

■ 수시과제

- 06-R14 청소년 생활시간 활용실태 및 변화 / 김기현·이경상
- 06-R15 청소년 성소수자의 생활실태조사 / 강병철·김지혜
- 06-R16 중국유학 한국청소년의 규모추정과 적응실태연구 / 김익기
- 06-R17 청소년의 미디어 이용과 인간관계: 이동전화와 인터넷 미디어의 영향 / 류춘렬
- 06-R18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시설환경 모델개발 / 김호순·황진구·한도희·김종훈
- 06-R19 청소년 법의식 평가척도 개발 및 적용에 관한 연구 / 김신영·신동준
- 06-R20 21세기 사회변화와 청소년정책의 중요성 / 고숙희·김영희·서동희
- 06-R21 고교생의 생활의식과 친구관계에 대한 국제비교 조사 / 김현철
- 06-R22 한국형 부모-자녀관계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구 / 최인재

■ ISSUE PAPER

- 06-IP01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실태와 발전 방향 / 김영호
- 06-IP02 외국의 청소년근로보호정책 연구 - 독일의 청소년근로보호법을 중심으로 / 김문섭
- 06-IP03 한국 청소년의 젠더 차이와 성차별 : 현황과 과제 / 손승영
- 06-IP04 사이버 상 청소년 보호를 위한 사이버 윤리지수 개발평가 / 김성벽
- 06-IP05 청소년의 휴대전화 문제행동 현황과 과제 / 성윤숙

■ 용역과제

- 06-R25 청소년 정책참여 활성화 및 참여권 확보방안 연구 / 최창욱·조혜영
- 06-R26 사이버상의 청소년보호를 위한 국제회의 / 성윤숙·이혜연·이창호
- 06-R27 제10차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 자료 분석 보고서 / 서정아·김경준·이춘화·김귀량
- 06-R28 청소년육성기금지원사업(1차) 평가 / 김현철·백해정

- 06-R29 청소년육성기금지원사업(2차) 평가 / 김현철·백해정
- 06-R30 청소년 문화갈등 분석 및 세대간 문화소통 방안 / 박영균·박영신·김의철
- 06-R31 2006년도 지방행정기관 청소년정책 평가에 관한 연구 / 김신영·임지연
- 06-R32 제2회 청소년특별회의의 정책의제 연구 / 최창욱·김영지
- 06-R33 동북아 청소년문화공동체 모형정립과 교류협력 모델개발 / 오해섭·이민희
- 06-R34 2006년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만족도 조사연구 / 김은정
- 06-R35 학교폭력 대책을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의 실천적 운영에 관한 연구 / 이민희·오해섭·이장현·신순갑
- 06-R36 청소년보호 관련법령의 개선방안 연구 / 이춘화·서정아
- 06-R37 2006년 청소년시설 종합평가 / 이민희·김경준·최창욱·황진구·성운숙·오승근·양계민
- 06-R38 2006년 청소년 백서 / 김현철·김기현
- 06-R39 2006년도 인권상황실태조사 연구용역사업(과제 : 실업계 고등학교 현장실습 실태조사) / 김기현·임지연
- 06-R40 2020 미래사회와 청소년 연구 I / 김기현·장근영
- 06-R41 청소년활동 참가 실태조사 연구 / 장근영·김기현
- 06-R42 제11차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 자료 분석 보고서 / 서정아·김경준·이춘화·김귀랑
- 06-R43 특별지원청소년 선정 및 지원방안 연구 / 윤철경·김경준·박병식·정익중
- 06-R44 청소년행복·역량 지수 개발연구 / 김신영·이경상·백해정
- 06-R45 국가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청소년직업체험활동 활성화 방안연구 / 임지연·김신영·김기현

■ 세미나 및 워크숍 자료집

- 06-S01 「위기청소년 지역사회보호 현황진단 및 발전방안」 (6.17)
- 06-S02 「한국 청소년 발달지표 조사연구 workshop : 결과 부문 지표의 이론적/경험적 타당도 검증」 (6.21)
- 06-S03 「청소년 문제행동 종합대책 IV 중간발표 워크숍」 (6.23)
- 06-S04 「주요선진국의 가족정책 특성과 한국의 정책과제 : 영국, 프랑스, 호주, 핀란드를 중심으로」
청소년기 사회화과정의 국제비교연구 I 협동연구기관 중간발표 워크숍 (6.29)
- 06-S05 「국제기준 대비 한국 청소년의 인권수준 실태연구 I - 청소년인권지표 개발」 (7.7~8)
- 06-S06 「청소년의 가족내 사회화과정 - 한국·일본·미국·독일·스웨덴 5개국 비교」
청소년기 사회화과정의 국제비교연구 I (8.2~5)
- 06-S07 「청소년 유형별 복지정책개발을 위한 워크숍」 (8.14)
- 06-S08 「청소년 방과후 활동의 운영 실태와 활성화 방안」 (8.17)
- 06-S09 「동북아 청소년의 역사인식·국가관 - 한국·중국·일본 3개국 비교」 (8.18)
- 06-S10 「사이버상의 청소년보호와 역량강화를 위한 국제회의」 (9.6~9.8)
- 06-S11 「청소년의 뉴미디어 이용현황과 문제점 및 대응방안 - 모바일을 중심으로」 (8.22)
- 06-S12 「위기청소년 지역사회 안전망 현황 및 발전방안」 (9.9)
- 06-S13 「청소년문제행동 종합대책 IV · 최종발표 워크숍」 (10.10)
- 06-S14 「청소년 정보화 현황과 대응방안 II · 최종발표 워크숍」 (10.19)
- 06-S15 「청소년과 미디어」 (11.10)
- 06-S16 「한국청소년행복지수」 (11.15)
- 06-S17 「제3회 한국청소년패널 학술대회」 (11.24)

■ 연구수행 자료집

06-M01 2005 연구보고서 요약집 / 연구기획팀

06-M02 2006년도 고유과제 실행계획서 모음 / 연구기획팀

06-M03 2006년도 고유과제 중간보고서 모음 / 연구기획팀

■ 학 술 지

「한국청소년연구」 제17권 1호 (통권 제43호) / 연구정보지원팀

「한국청소년연구」 제17권 2호 (통권 제44호) / 연구정보지원팀

■ 청소년지도총서

- 청소년지도총서① 「청소년정책론」
- 청소년지도총서② 「청소년수련활동론」
- 청소년지도총서③ 「청소년지도방법론」
- 청소년지도총서④ 「청소년문제론」
- 청소년지도총서⑤ 「청소년교류론」
- 청소년지도총서⑥ 「청소년환경론」
- 청소년지도총서⑦ 「청소년심리학」
- 청소년지도총서⑧ 「청소년인권론」
- 청소년지도총서⑨ 「청소년상담론」
- 청소년지도총서⑩ 「청소년복지론」
- 청소년지도총서⑪ 「청소년문화론」
- 청소년지도총서⑫ 「청소년프로그램개발 및 평가론」
- 청소년지도총서⑬ 「청소년 봉사활동 및 동아리활동론」
- 청소년지도총서⑭ 「청소년기관운영론」
- 청소년지도총서⑮ 「청소년육성제도론」

■ 한국청소년개발원 문고

- 한국청소년개발원 문고 01 「좋은교사와 제자의 만남」
- 한국청소년개발원 문고 02 「행복한 십대 만들기 10가지」
- 한국청소년개발원 문고 03 「집나간 아이들 - 독일 청소년 중심」
- 한국청소년개발원 문고 04 「청소년학 용어집」

연구보고 06-R01-1

청소년의 선호직업 및 직업가치 특성에 관한 연구

인 쇄 2006년 12월 3일

발 행 2006년 12월 5일

발행처 **한국청소년개발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우면동 142

발행인 배 규 한

등 록 1993. 10. 23 제 21-500호

인쇄처 (주) 계문사 전화 (02)725-5216 대표 류윤현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전재·복제를 금함.

구독문의 : (02) 2188-8844(연구정보지원팀)

ISBN 89-7816-611-3(93330)